‘도깨비’에서 ‘황금빛 내인생’까지

안방극장 올해도 시청자와 함께 울고 웃었다

‘도깨비’ ‘응팔’ 등 대작 쏟아져

케이블 사상 20% 시청률 돌파

‘황금빛 내인생’ 등 지상파 재기

도깨비

힘쎈여자 도봉순

낭만닥터 김사부

900살 먹은 도깨비는 케이블 시청률 역사를 다시 썼고, 힘겨운 현실에 부모마저 바꾸고 싶었던 흙수저 아가씨의 이야기는 시청률 4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7년 안방극장도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며 많은 이야기와 반응을 만들어냈다.

‘본방사수’시청률은 하락세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청률 대박작이 종종 등장했다. 또 시청자들의 ‘몰아보기’ 시청행태가 자리를 잡으면서 시청률과 상관없이 뜨거운 반응을 끌어낸 작품들이 나왔고, 이는 인터넷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장르 드라마가 약진해 드라마의 다양성을 넓힌 것은 반가운 소식. 반대로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판타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식상함을 안겨줬다.

◇ 케이블 20% 뚫고, 지상파 40% 재도전

지난해 12월2일 시작해 올 1월21일 끝난 tvN ‘도깨비’는 케이블 22년 역사를 다시 썼고, 지상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시작부터 남달랐다. 역대 tvN 드라마 첫회 최고 시청률인 6.9%로 출발한 ‘도깨비’는 3회에서 12.7%를 기록하며 10%를 가볍게 넘어서더니 마지막 16회에서 20.5%를 기록하며 마의 20% 벽을 깼다. 1995년 국내에서 케이블TV가 방송을 한 이래 20%를 넘긴 프로그램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2016년 1월16일 ‘응답하라 1988’로 19.6%를 기록한 데 이어 1년 만에 20% 고지를 밟은 tvN은 명실상부 지상파 부럽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하며 스테이션 브랜드를 굳건히 했다.

지난해 ‘태양의 후예’로 국내외를 들었다 놓은 김은숙 작가는 ‘도깨비’로 2년 연속 초대박을 치며 한국 최고의 드라마 작가임을 뽐냈고, 900살 먹은 도깨비를 연기한 공유의 인기는 하늘을 뚫었다.

지난 9월2일 시작한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은 11월26일 26회에서 시청률 39%를 기록하며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청률 40%의 위업은 미니시리즈 드라마는 2012년 2월 MBC TV ‘해를 품은 달’ 이후 5년간 없었으며, 연속극은 2015년 2월 KBS 2TV ‘가족끼리 왜이래’ 이후 2년간 없었다.

시작은 진부한 출생의 비밀이었지만, 소현경 작가는 출생의 비밀 카드를 디딤돌로만 활용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금수저가 된다면 부모도 버릴 수 있었던 흙수저 아도가씨(신혜선 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군상의 심리를 포착해내며 남녀노소를 끌어당기고 있다. 방송가는 50회로 기획된 ‘황금빛 내 인생’이 조만간 4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시즌2 부탁해요”…김사부·김과장·도봉순·황시목·마이듬

뚜렷한 개성과 매력을 탑재한 주인공들이 잇따라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들며 시즌2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1월16일 27.6%로 막을 내린 SBS TV ‘낭만닥터 김사부’의 괴짜 의사 김사부(한석규)를 비롯해, KBS 2TV ‘김과장’의 허허실실 김과장(남궁민), JTBC ‘힘쎈여자 도봉순’의 괴력 처녀 도봉순(박보영), tvN ‘비밀의 숲’의 무미건조 검사 황시목(조승우), KBS 2TV ‘마녀의 법정’의 속물 검사 마이듬(정려원) 등이 올해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들이다.

또 JTBC ‘품위 있는 그녀’의 박복자(김선아)와 우아진(김희선), MBC TV ‘죽어야 사는 남자’의 알리 백작(최민수), tvN ‘아르곤’의 김백진(김주혁)과 이연화(천우희) 등도 기존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캐릭터로 방점을 찍었다.

이밖에 지성이 혼신의 연기를 펼친 끝에 28.3%로 막을 내린 SBS TV ’피고인’을 비롯, 신예 임상춘 작가의 필력이 돋보인 KBS 2TV ‘쌈, 마이웨이’, 18년의 세월을 오간 장나라의 연기가 압권이었던 KBS 2TV ‘고백부부’, 아줌마들의 생활형 복수를 코믹하게 그린 tvN ‘부암동 복수자들’ 등도 올해가 발견한 작품들이다.

그런가 하면 SBS TV ‘언니는 살아있다’와 MBC TV ‘불어라 미풍아’, MBC TV ‘당신은 너무합니다’ 등은 한국형 막장 드라마의 계보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택시운전사’ 송강호·‘아이 캔 스피크’ 나문희

한국영화제작자들이 뽑은 남녀 주연상

송강호

나문희

‘택시운전사’의 송강호와 ‘아이 캔 스피크’의 나문희가 영화제작자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배우로 뽑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제4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남녀 주연상 수상자로 송강호와 나문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작품상은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 감독상은 ‘박열’을 연출한 이준익 감독에게 돌아갔다.

남우조연상은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의 김희원, 여우조연상은 ‘더 킹’의 김소진이 각각 차지했다.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은 촬영상과 조명상까지 3개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남한산성’ 역시 편집상·음향상을 합해 3관왕을 차지했다.

‘군함도’는 미술상·음악상, ‘아이 캔 스피크’도 각본상까지 각각 2개 부문에서 수상한다.

‘우리들’, ‘용순’ 등 독립·예술영화를 만들어온 제작사 아토는 특별상을 받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은 한해 동안 현장에서 애쓴 영화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영화제작자들이 예심·본심 심사를 진행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6시 명필름아트센터에서 배우 권해효의 사회로 열린다.

/연합뉴스

“어려운 이웃에 도움 되고 싶었죠”

승리, 사업 수익금 1억 기부

생일날 아버지와 연탄 배달도

아버지와 함께 연탄배달 봉사활동 하는 ‘빅뱅’ 승리.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7)가 12일 생일을 맞아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승리가 대표로 운영하는 아오리F&B는 이날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전달했다. 또 같은 날 승리는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쳐 뜻깊은 생일을 보냈다.

아오리F&B는 승리가 지난해 창업한 일본식 돈코츠라멘집 프랜차이즈 회사다. 승리는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로 이번 기부금을 마련했으며 평소 협력해 온 이마트에서도 3000만원을 후원해 총 1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후원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부 후원금을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해 연탄이 필요한 가정도 도울 계획이다.

승리는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었다”며 지속적인 기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 20 역류 (재)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재)	50 로봇이 아니야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0 흑기사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MBC 뉴스 10 특선 다큐멘터리 우리 엄마 순애씨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특집다큐 2017 대한민국 인구절벽 보고서 50 건강혁명		10 MBC 특별 생방송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55 닥터 365
2	10 미래기획 2030 – 대한민국 말 산업, 신성장동력을 꿈꾸다!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00 뉴스브리핑
3	00 특집다큐 도심화재, 우리는 안전합니까? 50 UHD 한식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35 로봇이 아니야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KBC보도특집다큐 해, 미래를 품다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2017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00 MBC 뉴스 10 하하랜드 스페셜 30 전생에 웬수들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재) 20 UHD 한식 (재)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0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글로벌 다큐멘터리-세계의 산맥			
10	30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이판사판
11	00 문화의 향기 5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김생민의 영수증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재)	20 세상의 모든 다큐(재)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전사의 조건 멘타와이 성인식〉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뚜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레이디버그
09:30 몰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치하이라이스, 감자 연어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e
12:45 EBS 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샤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한글이 야호(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뚜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20:40 다큐 오늘
〈미얀마의 옹기 만드는 사람들〉
20:50 세계테마기행
〈호주, 그 멋진 날에
자연이 빚어낸 신비 서호주〉
21:30 한국기행
〈사투리 기행 3부 그려? 그류!〉
21:50 EBS 다큐프라임
〈극한의 땅 2부
– 시베리아 오이먀콘의 겨울〉
22:45 극한직업
〈새어나가는 열을 잡아라!
단열집과 단열시공〉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3일 ((음 10월 26일 甲戌)

子 **48년생** 자연스럽게 진행 시키고자하는 자세가 양호한 결과로 이끈다. **60년생** 알뜰하고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복잡해지면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황이다. **84년생**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적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5, 46

丑 **49년생**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61년생** 관계를 개선하면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73년생** 서로 뜻이 맞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85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원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길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22

寅 **50년생** 생각만으로는 무의미하니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상대는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내색하려 한다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 **74년생** 설마 했다가 크게 당황할 수도 있는 면모로다. **86년생** 바로 그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87

卯 **51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사된다. **63년생** 굳이 지엽적인 부분에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 **75년생** 누적되어 왔던 것이 드디어 모양새를 갖추게 되리라. **87년생** 본격적인 궤도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행운의 숫자 : 40, 24

辰 **52년생** 은원을 차치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64년생** 경제적인 면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76년생**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비해야겠다. **88년생** 체면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7, 34

巳 **53년생**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인 법이니 굽은 것은 펴는 게 옳다. **65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낫다. **77년생** 상부상조해 나간다면 당해내지 못할 바가 없다. **89년생** 마지막에는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80

午 **42년생** 소탐대실하지 말라. **54년생** 뜻밖의 만남으로 인해 당황하리라. **66년생** 타산지석으로 본보기 되어 줄 것이다. **78년생** 누구든 회자정리하는 법이다. **90년생** 주변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90, 45

未 **43년생**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 하자. **55년생** 강풍에 우산이 뒤집힐까봐 전전긍긍한다. **67년생** 수익은 있으나 규모가 작다. **79년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91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국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28, 31

申 **44년생** 애매한 것이 있다면 차제에 반드시 투명하게 구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56년생** 즉시 배제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복잡하여 가늠하기가 힘들 것이다. **80년생** 근원을 찾아 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7, 32

酉 **45년생**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선택을 잘 해야 형국을 유지한다. **57년생** 속도 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69년생** 가장 견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81년생** 점점 세분화되겠다. 행운의 숫자 : 38, 29

戌 **46년생**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58년생** 꾸준히 실행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70년생** 너무 오래 되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82년생** 과거에 묻어 두었던 비밀들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나는 형세를 이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15

亥 **47년생** 방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어느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59년생** 주어진 여건을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71년생** 힘들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자. **83년생** 공허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22, 5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